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취업성공을 위한 소프트 스킬

취업하기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가 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끌고 올 때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도 많다. 어떤 자리에나 중요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인재는 부족한 법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즉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무엇이 개인의 취업능력을 결정하는가?

개인의 취업능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 개성, 기질, 성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능력 등 개인의 속성도 포함하고 있다. 요새는 이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하드 스킬'과 개인적 기질, 개성과 사람 관계능력 등을 의미하는 '소프트 스킬'로 구분하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하드 스킬은 전공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기계·기구의 조작, 설계, 회계, 원가 계산, 사무 절차·방법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말한다. 하드 스킬의 속성상 개인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계량화하기가 쉬운 편이다. 반면에 소프트 스킬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도 하거나 추상적인 요소가 강해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기

가 어렵다.

A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세무 실무에 대한 강의도 들어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암전하고 내성적이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발표력도 약하다.

B는 학과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으나 성격이 활달하고 열정과 자신감이 있으며 리더십과 발표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비교하면 A는 하드 스킬은 좋고 소프트 스킬이 약하다. B는 하드 스킬에 비해 소프트 스킬이 강하다. 취업이나 직장에서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글이나 말로 표현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실력을 알 수 있겠는가?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열정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런 실력이 무슨 소용 있는가? 혼자만 똑똑하다고 여러 사람의 지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식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계속 보완해 가게 된다.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지식·기술보다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열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는 지식·기술보다 그 사람의 소프트 스킬 능력에 더 좌우된다고 말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강한 소프트 스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대개 하드 스킬, 즉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출신 학교, 학과 및 학점, 어학 실력, 통사활동 실적 등을 내세우며 좋은 '스펙'을 과시한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출신 학교와 성적으로 표시되는 하드 스킬보다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태도 등 소프트 스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불합격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하드 스킬은 인터뷰할 기회를 주지만, 소프트 스킬은 취업자리를 준다고 한다.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뒀던 대학에서도 최근에는 소프트 스킬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특성상 소프트 스킬은 쉽게 측정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향상되는 게 아니어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직장에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매진하는 사람과 주어진 일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람과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는 평가는 다르다. 당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성격과 자세의 차이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를 통하여 축적·발전시키게 되는 역량도 달라져 갈수록 능력의 격차가 커진다.

마음이 열린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배우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더 나은 결론에 이르는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은 중요하다. 취업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적인 역량과 기질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니 사회에서의 경쟁력, 즉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일본전산의 나가모리 시게노부 회장 같은 세계 초일류 기업인도 일류 대학 출신보다 목소리 크고 빨리 달리는 열정 있는 청년을 선호한다고 하겠는가. 소프트 스킬을 강조하는 말이다.

직장에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매진하는 사람과 주어진 일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람과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는 평가는 다르다. 당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성격과 자세의 차이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를 통하여 축적·발전시키게 되는 역량도 달라져 갈수록 능력의 격차가 커진다.

마음이 열린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배우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더 나은 결론에 이르는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은 중요하다. 취업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종 고 카 림



일 담

물에는 연꽃을 심어 천연스런 자태를 아끼고, 동산에는 매화로 해맑은 품격을 승상하며, 국화는 절개를 취해 서리에도 끄떡 않는 자태를 돌아본다. 물가에는 대나무가 있어 마름 맞음을 익히하고, 뜨락에는 난초를 심는다. 조롱에는 학을 두어 달빛에 물고, 시련에는 거문고가 있어 바람에 운다.

학은 달빛에 물고 거문고는 바람에 운다. 백운동으로 유기(幽居)했던 이담로(1627~?)가 노래한 풍경이다. 승가에서는 흰구름·'백운'을 수행자로 비유한다. 머무는 바 없이 머물고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백운동에 깃들어 살았던 유학자는 속세의 욕망보다는 자신의 이상향을 꿈꾸었

다. 그가 심었던 연꽃이며 매화, 국화 등은 단순한 꽃과 나무가 아니다. 진흙에 뿌리를 박고 올라오는 연꽃처럼 물드지 않고 겨울

추위와 바람이 매서울수록 웅장하게 피어나는 매화향처럼 고고하게 살고 싶어하는 은거인의 애틋함이 녹아있다.

백운동 별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쇄원, 명옥헌처럼 몇 남지 않은 호남 전통 원림을 간직한 별서다. 강진의 금당리 원주 이씨 마을 출신의 장사왕은 지난 이담로가 세상 인연을 끊고 백운동으로 들어와 손수 백운유거(白雲幽居) 현관을 걸고 만년을 보낸다.

학문과 글 솜씨로 이름이 높았던 이담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글을 남기고 사후에 좌승자로 추증된다. 장사왕은 정9품의 말단관료이다. 반면에 좌승자는 정7품의 당상관으로 단숨에 6등품을 뛰어 오른 것이다. 백운동 별서에서 은거하면서 살았던 이담로의 모습이 당시 많은 지성인들이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11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백운동 별서는 다산 정약용으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1812년 음력 9월에 다산과 조의는 백운동 별서로 소풍을 간다. 하룻밤 잤다는 말도 있고 며칠 밤을 놀면서 보냈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 노인네가 다산초당에 돌아와서도 백운동을 잊지 못하고 꿈결에 뒤쳐이며 후유증을 앓았다는 사실이다. 초으로 하여금 '백운동'을 그리게 하고 뒷붙여 12가지 향기로운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끝에는 다산도를 따로 그려 붙여서 우열을 가려보자며 치기를 부리기도 한다.

다산과 초의 두 스승은 백운동 별서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이 그토록 당대 두 지성인들의 가슴을 울렸을까? 그의 문은 나로 하여금 가을밤을 앓게 만들었다. 그래서 월출산에 단풍이 들면 둑은 병이 도지는 것처럼 백운동을 찾는다. 그리고 소나무 아래 정선대에 올라 백운동 단풍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 하루는 12층짜리 첫 번째인 '옥관동의 상쾌한 기운(玉版爽氣)'을 찾아 앙간 차밭을 헤매고 다닌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숨겨진 차밭'에서 천불동이라고 불려졌던 기암바위들과 언덕위 친나무들을 바라보며 눈을 밝히기도 했다.

요즘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말춤을 춘다. 텅 비어 버린 백운동 별서를 보면서 말춤을 추는 정치인들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백련사 총무스님〉

기 고



박봉순

처음 F1대회를 한국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수도권 아닌 전남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지난 2번의 F1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금에 와서는 결코 유치가 잘못되었다는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해 주고 있다.

우선 전세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남도를 확실히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60년 역사로 자랑하는 F1그랑프리의 세계 3대 스포츠라는 명성을 걸맞게 전세계 188개국 6억 명이 시청하면서 우리 전남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F1대회로 얻은 큰 수확이다. 대회기간 동안 수많은 국내외 관객들이 대회장을 찾으면서 전남 곳곳을 찾고 밤늦게까지 식당과 거리는 외국인들로 북적거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F1 성공 개최, 지역주민에 달렸다

2011년 F1대회 때 속박시설의 이용이 2만 2000실에 이르고 며칠 자고 하는데에 직접 지출했던 금액은 385억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속박은 이미 객실 예약이 끝나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지난 F1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은 108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1784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F1대회 개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죽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2번의 대회를 개최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대회운영, 교통, 숙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언론과 지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세계적 문화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싸이'를 'F1스타일'로 패러디해 접목함으로써 티켓판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남는 것은 올해 대회를 포함해 남은 5년간의 F1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애정심을 바탕

으로 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회를 개최해 성공한 인도 그레이터 노이다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교통 통제 계획에 참여하고, 각 팀의 서포터스로 참여하여 활발한 응원전을 펼치는 등 관중석을 기록 메우는 열정을 보여준 사례가 잘 말해 주고 있다.

대부분 세계 각 나라의 국제경기 관람객의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628/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광주시 올해 외자유치 전국 꼴찌라니

들어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의 투자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고, 시의 투자 전략도 폐도 수장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새누리당 여성구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광주지역의 외국인 투자액은 700만 달러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전남은 1억 9000만 달러를 유치해 9번째 순위였다. 광주지역의 외국인 투자 실적은 지난 2010년 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800만 달러로 4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올 들어 유치 실적이 크게 저조해 1000만 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은 61억 5700만 달러로 지난해 말 수준인 65억 5000만 달러에 극복하면서 연말이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라 전망이다. 이 중 71.2%인 43억 8500만 달러가

전남대 일부 교수들 뇌물에 성접대까지

전남대 교수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리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국 38개 국립대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비리 행위는 논문심사 과정에서의 뇌물을 수수부터 논문대필, 연구용역비 부당 사용, 횡령, 제자 성희롱 등 학자로서의 기본 양심을 포기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부부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남대 전임교원 징계대상은 2009년 5명, 2010년 8명, 2011년 6명 등 총 19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부경대(22명)와 경북대(21명)에 이은 3번째다.

전남대 교수들의 비리 행위는 논문심사 과정에서의 뇌물을 수수하는 물론 논문대필이나 논문표절 등 학자로서의 기본 양심을 저버리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유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횡령

을 저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제자 성희롱과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접대를 요구한 과정에서의 비위도 일삼았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그것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교수들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니 땅에 떨어진 도덕적 해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A교수는 논문심사와 관련해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제자를 성희통한 B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접대를 요구한 C교수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모든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최고의 지성이다. 그러한 면에서 비리 교수들에 대해선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솔방방이 처벌로는 오히려 내성만 키울 뿐이다. 교육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강화는 물론 당사자인 교수들의 자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無 等 鼓

1969년 미국 뉴욕주립대 제임스 해밀턴 교수와 고든 멜슬러 교수가 거세와 인간 수명의 연관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의 상장인 고환을 제거한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혈통의 백인 남성과 정상인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 봤더니 정상인은 평균 56세를 살았지만 거세한 사람의 평균 수명은 69세로 13년의 차이를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1900년대 유럽에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세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뉴욕주립대 교수들의 조사 대상도 1900년대 초반 태어난 사람들로 정신병원에서 관리를 위해 거세한 선진지체자나 정신박약자들이었다. 거세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점은 있지만 거세가 인간 수명을 늘린다는 가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 남성호르몬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시대 환관 기경현은 101세까지 살았다. 현종 12년인 1670년에 태어나 숙종·경종을 거쳐 영조 48년인 1771년에 세상을 떠났다. 조선 역사에 영구로 남은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영광스러운 삶을 기록해온다. 그의 수